

ARCHITECTURE

DORELL.GHOTMEH.TANE ARCHITECTS

Dan Dorell 단 도렐
Lina Ghotmeh 리나 고메 그리고
Tsuyoshi Tane 츠요시 탄
이들은 DGT ARCHITECTS의 공동대표이다.

예전에 소비에트 공군기지로 쓰였던
도시 중심부의 상처 같은
34,000m²의 공간을 다룬 에스토니아 국립박물관으로
그들의 재능은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예술, 디자인, 패션 그리고 사회학에서도 영감을 얻는 그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 창의적인 공간작업으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취재 · 사진재 : 자오제광 · DGT ARCHITECTS www.dg architects.com, APR www.alexandrapr.com



세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그 첫 번째 작업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우리는 2006년에 에스토니아 국립박물관(Estonian National Museum) 디자인 공모전으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각각 파리의 관공에 있는 국제적인 오피스에서 다른 분야의 일을 했었다. 우리는 에스토니아 국립관 디자인 공모전에 당선되었고, 그곳이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되었으며, 그 순간 우리는 DGT를 만들기로 결심했었다.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를 주로 해왔나? 세 사람이 함께 일해서 얻은 장점은 무엇인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 공간, 박물관 스테디움 등의 문화 공간, 전시장, 무대장치 등의 공연/전시 공간까지, 우리는 매우 다양한 타입과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사실 한 스튜디오에서 6개의 손과 6개의 눈으로 함께 작업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우리는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두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돕는 방식으로 함께 일한다. 혹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의사 결정을 하고 프로젝트의 감자를 심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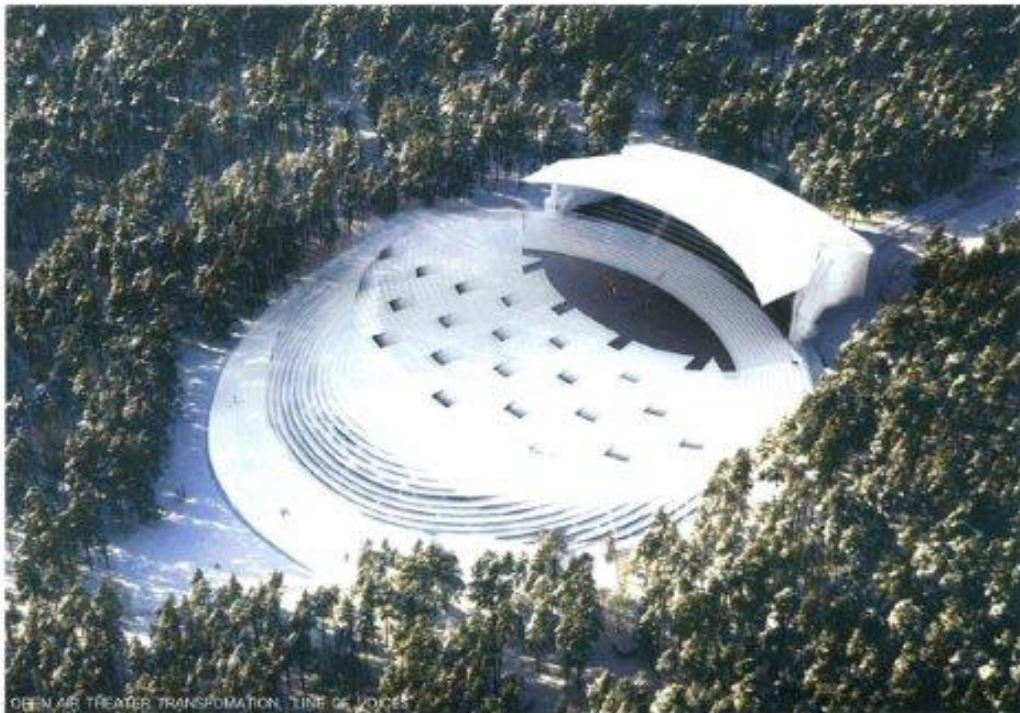
당신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항상 확신을 가지고 있나? 확신?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프로젝트를 믿는다. 모든 프로젝트는 도전적이고 새로운 발견이다. 우리는 우리의 디자인과 콘셉트를 믿는다.

당신들이 작업한 아르튀르 랭보 뮤지엄(Arthur Rimbaud Museum)은 어떤 작업이었나?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흥미로웠다. 프로그램과 공모전 주최자의 비전 그리고 19세기 프랑스의 시인 아르튀르 랭보(Arthur Rimbaud)와 그의 시리는 주제 역문이다. 우리는 틀에 박힌 박물관 디자이너의 의문을 제기하고, 영감을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상상했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그에게 돈을 빼앗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옮겨보고자 노력했다.

최근에 마무리한 프로젝트 중에 활간 인테리어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공간이나 전시는? 물론 에스토니아 국립박물관이 우리의 대표적 중 하나인데, 이 건물은 곧 공사를 시작한다. 레마논의 수도 베이루트(Beruit)에서는 아티스트를 위한 주거 빌딩이 곧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룩노의 파리모터쇼(Paris Mondial de l'Automobile) 그랜드 오픈을 맡았다. 우리가 디자인한 그 스탠드는 앞으로 3년간 세계를 순회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우리는 현재 공모전인 새로운 도쿄 국립경기장을 진행하면서 브뤼셀과 제네바 모터쇼의 룩노 스탠드도 작업하고 있다. 또한 파리에서 유명한 레브락 디자이너의 전시회를, 독일에서는 아카데미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RESIDENCE IN BEIRUT, "CARLTON GRO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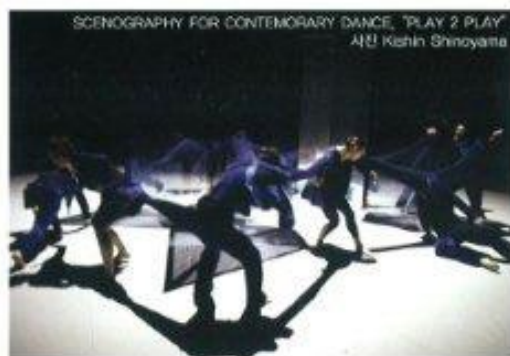
RESIDENCE IN BEIRUT, "CARLTON GROVES"



APARTMENT COMPLEX, "BEIRUT VILLAGE"



SCENOGRAPHY FOR CONTEMPORARY DANCE, "ZONE - periodic"
Art: Takashi Shikama



SCENOGRAPHY FOR CONTEMPORARY DANCE, "PLAY 2 PLAY"
사진 Kishin Shinoyama



Memory Field MUSEE NATIONAL ESTONI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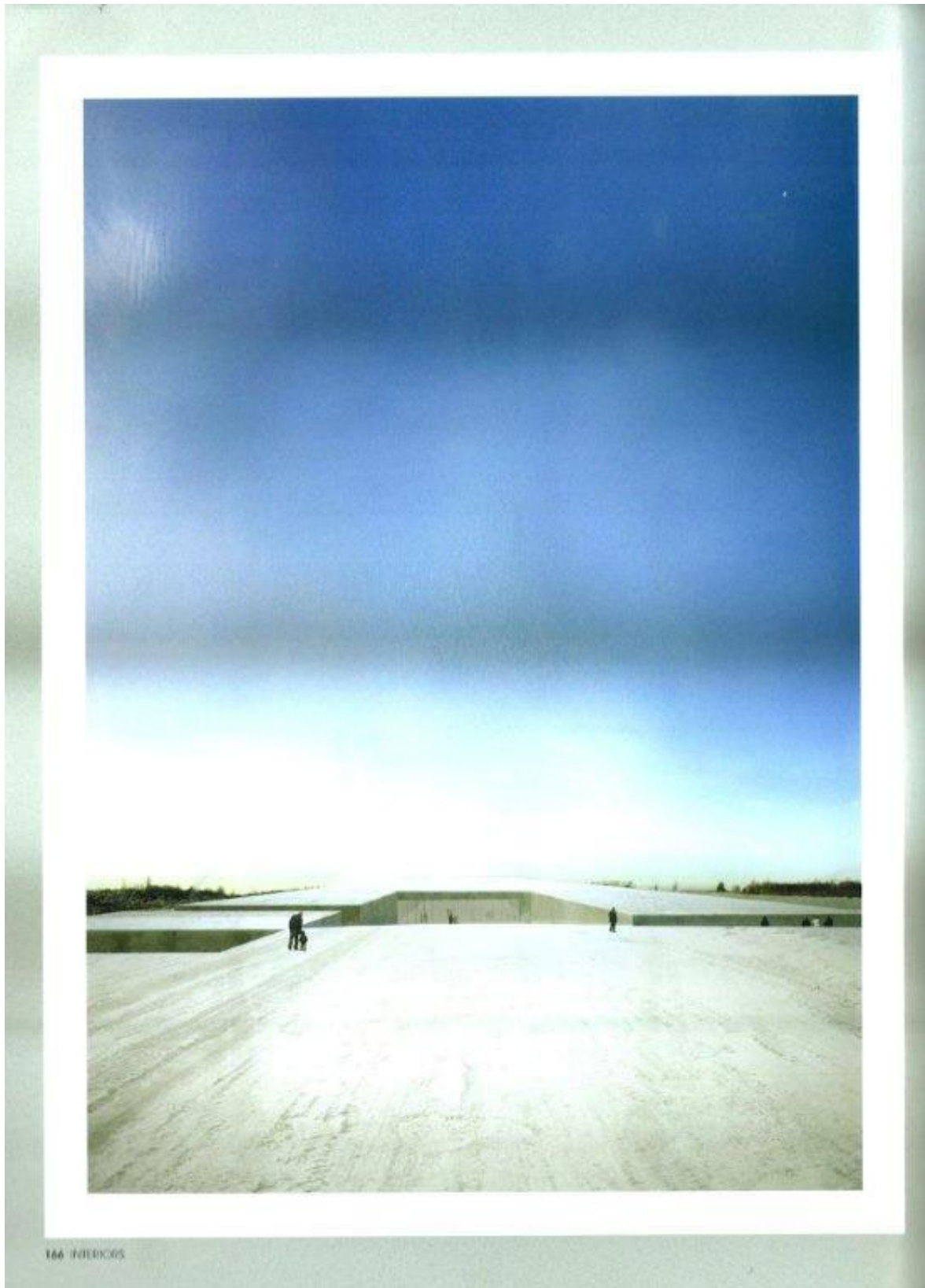
에스토니아는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하고 2004년에 유럽연합에 합류하면서, 사회적, 경제적인 개화를 위한 신속한 프로그램을 착수하였다. 에스토니아 문화부의 열정으로 국가적 아이덴티티와 독자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우기 위해 요정된 타투(Tartu)에 들어설 새로운 에스토니아 국립박물관에 대한 계획도 그의 일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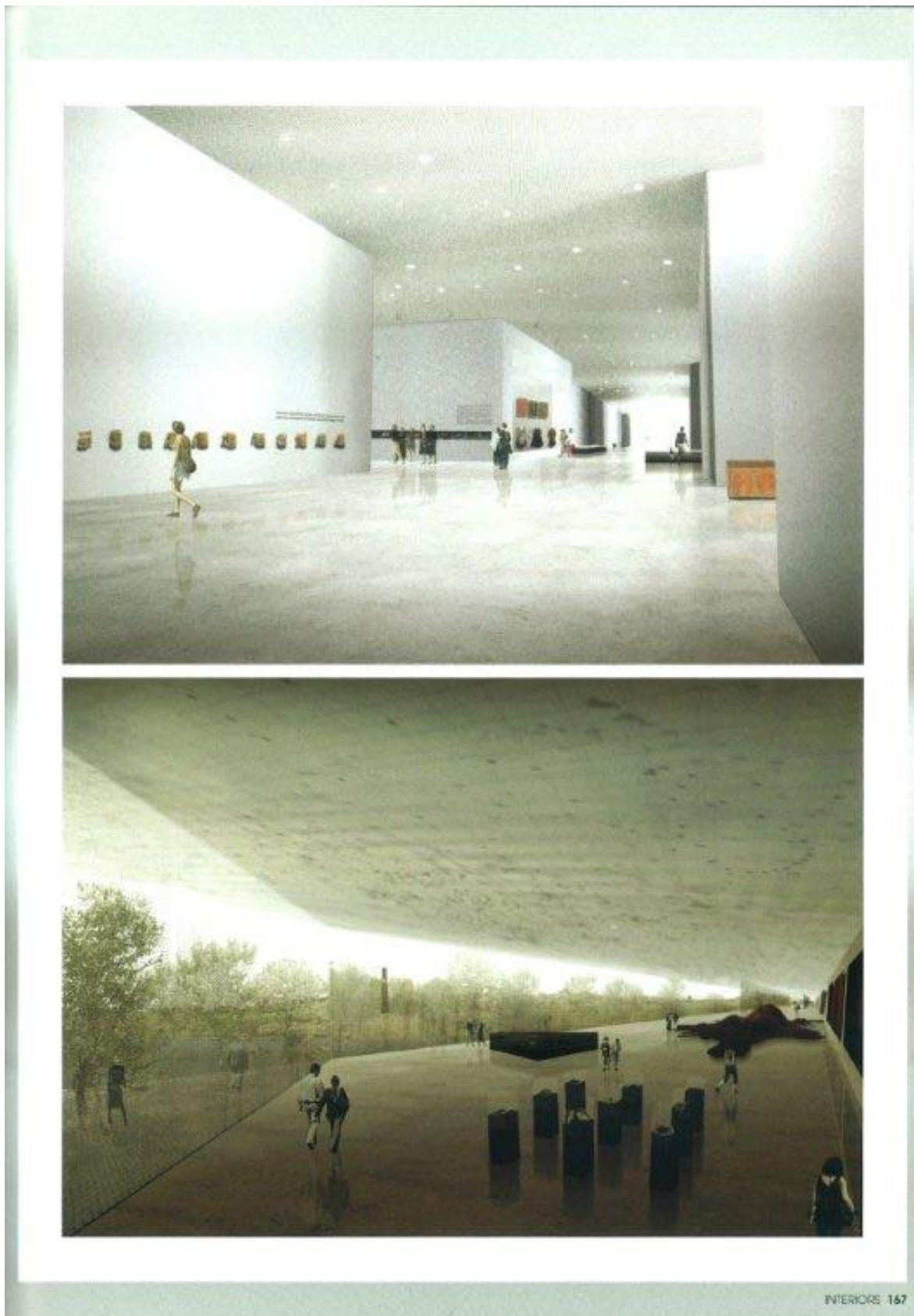
140,000개 입체성을 담은 34,000m² 크기의 박물관 빌딩의 디자인과 실행을 위한 국제공모전이 2005년에 시작되었다. DGT는 이 박물관 공모전에서 도전하면서 우선 물리적으로 첫걸음 이룬 역사를 상징하는, 소련군이 머물렀던 부근으로 박물관의 장소를 다시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박물관이 이 지역을 바꾸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렵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장소를 새롭게 다듬으로써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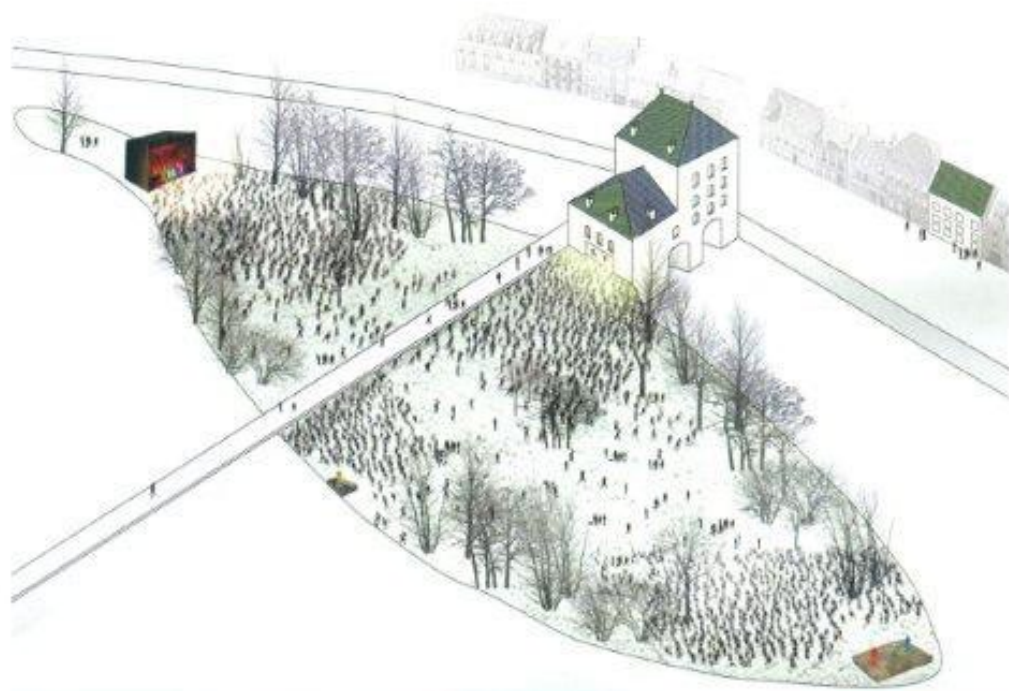
디자이너들은 이 민감한 자연성에 비행기 이착륙장을 도입하였다. 지평은 둘러치고 무성한 공간으로 확장되어 방문객들을 박물관의 전체 전경과 박물관의 중심부를 향해 초대하고 있다. 때때로 활동 - 전시, 공연, 강연 등 - 을 위해 박물관은 잘 개성되도록 디자인되었다. 가깝은 아직 이른 역사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이고 많은 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에스토니아 국립박물관은 2015년에 완공된다.

주최 DGT
 자문 ARUP, London (competition phase), EA Rang AS, Tallinn (current phase)
 자문 IEFB Engineering, Paris (competition phase)
 자문 BUREAU SAS SVETS, Brussels
 자문 EA Rang AS, Tallinn
 자문 Lohi, Estonia
 자문 MUKOMI
 자문 JANI - Local Architect, HGA, Tallinn
 자문 THE/PH/ANNA - PYLE LAUSMAE, Tallinn
 자문 KJVM, Tallinn, Latvia
 자문 JEM, Tallinn









Couverture MUSEE RIMBAUD DANISH NATURAL HISTORY MUSEUM

설계: DGT
 기술: ETC
 조경: CAD PERROT STUDIO
 QS: Bureau Michel FORQUE
 주소: 51000
 도시: Charleville-Mezieres
 면적: 5200m²
 지역: Maire de la Ville de Charleville-Mezieres
 자료제공: DGT

경로와 풍경은 거대한 구멍이 빌딩의 내부까지 퍼져있고 있는데, 그 부분은 깊어지는 기둥조차 없으니 내뿜고 하기도 했다. 고쳐지는 구멍은 방향성 없이 건물의 모든 면으로 열려 있고, 길의 흐름,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펼쳐진 전망 등 가능한 모든 관행을 허락한다. 그 서정적인 구멍들은 그의 초상화나 우리가 알고 있는 특유의 영보로 보정하고 있다. 우리는 마치 그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구멍들은 우리를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who is another)라고 말했던 영보의 삶의 교차점이 된다. 우리의 부활, 우리의 흥취, 우리의 문적임으로 구멍을 통해 영보를 향해 다가가는 것은 역동성 있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는 곧 일어나고, 수정 파시드나 아래로 배기 지나가는 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의 중심에 들어가면 우리는 연가지의 목소리를 통해 그는 다른 시간대에 나타난다. 공간이 수직으로 펼쳐지는 그 순간에 구멍은 활기차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낯설어 활기를 입는다. 제멋대로 퍼져나가는 경사로의 계단 그리고 빈 밑발에 옥외관람석이 펼쳐진다. 박물관은 극장이 되는 것이다. 2012년 공모전 당선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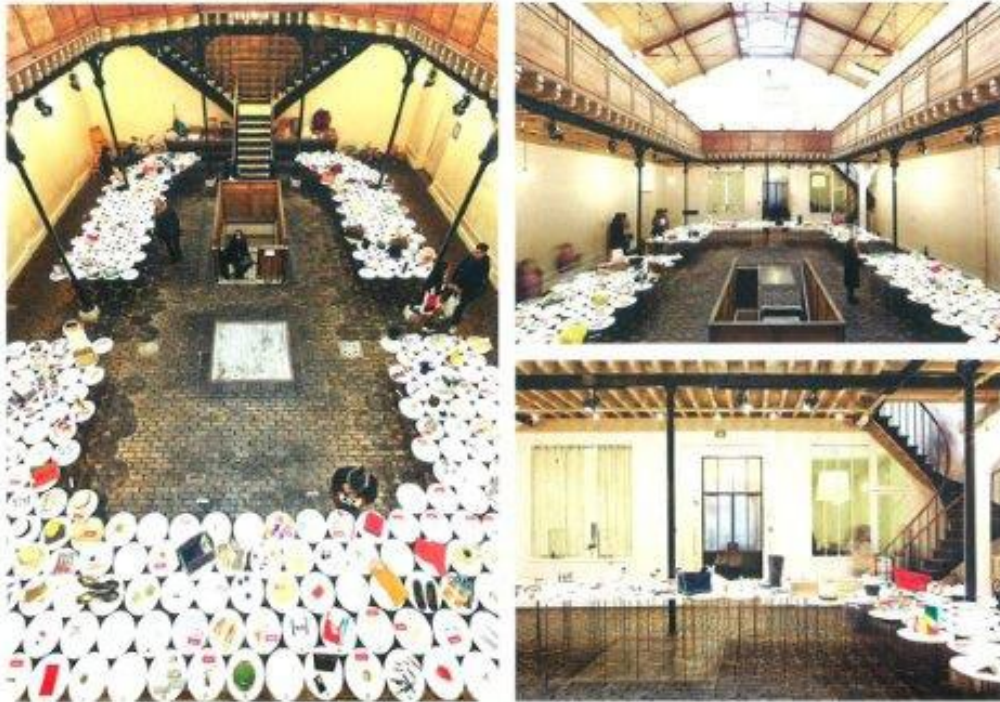




Luce Tempo Luogo TOSHIBA MILANO SALONE

설계 DGT
 후원 Tomi Okuyama, Tokyo
 기술지원 Masaharu Chiroda (Canon), Tokyo
 프로젝트 코디네이션 ASK, Tokyo
 계약 Scogiana, Milan
 일 시안점 Betex, Tokyo
 위치 Milano, Italy
 면적 1,340㎡
 업체 Toshiba Corporation
 제작 1월 11일 Lighting installation
 개관 June 2012

DGT는 Toshiba의 파트너로서 2011년 밀라노 디자인페어에서 LED 조명 을 이용한 설치물을 디자인하였다. 이 전시회는 수세기 전에 세워진 Cortile di via savona에서 있었다. 세월의 때가 묻은 이 건물은 긴 세월 밀라노 역 시를 목격해 온 존재이다. 그 건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DGT는 이 장소가 창조 성과 기술성이 만들어낸 조명의 독특한 경험으로 얼마나 위대한 가치로 가 득 재워질 수 있을지를 고려하였다. 이곳에서만 존재하는 조명 이 프로그 램 되는 조명에 대한 3가지의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접근 - 이용자가 없는 해인 터널, 설치물을 향한 입구이다. 천장을 따라 펼쳐진 하나의 선은 바닥 위에 한 줄의 광선기로 반영되었다. 움직이는 곧 트 하나의 빛의 선이 된다. 인물 - 물이 표면에 만들어지는 끊임없는 진동결은 낮에는 태양에 의해서 밝아는 LED 조명에 의해서 바뀌진다. 그리고 그 잔 물결은 100년 이상 된 벽에 비친다. 내부 - 조명의 벽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적인 공간 여러 갈 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볼 수 없이 많은 빛과 조각들로 변신을 거듭한다.



365 Charming everyday things

SCENOGRAPHY FOR A TEMPORARY EXHIBITION

'365 - Charming Everyday Things' 는 파리에서 전시되고 판매되는 일본의 일상 용품 365가지를 소개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전시장소는 파리에 있는 40년에 이상을 돌아보고서야 선정되었다. 선정된 장소는 19세기에 세워져 원래 금속공장으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오래된 공장은 바닥에 깔린 목재 포장재로 더 풍부했다. 한편 이 오래된 공장의 공간은 파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본의 일상용품으로 인해 이미 강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365개의 아이템을 카페나 시장에서처럼 파리의 일상생활에 결합시킨다면 어찌 될까? 전시공간들은 파리 생활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반영하였다. 가느다란 막대 하나에 의지하여 공중에 떠 있는 형형 잡잡한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피로 놓은 전시방법은 보기 드문 경치를 조성하였다.

각 아이터మ్은 다른 것들과 떨어져서 둥근 접시 위에 놓였다. 그 접시들은 일회성이 연속성으로 하나하나 분리되어서 있음에도 구멍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각 접시에 일면 하나의 다리를 거동 구조로 만들어서 목재로 마감된 바닥의 기성품 형상이었다. 지하층에서는 오직 빛으로만 그 형상을 나타내어 양면이 보이지 않게 한 달씩 상어를 만들어 365일을 보여주고 있는 양면이 신사였다. 2층에 있는 매장은 중앙의 보이드와 계단으로 극장 같은 공간배치를 표현하였다. 이 신사 혹은 Aomori에 있는 A 공장, 도쿄의 긴자의 Pola 갤러리, 21세기 건축이슈, Kanazawa 등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전시되어 장소 특성의 공간에 따라 각기 다른 다양성을 광범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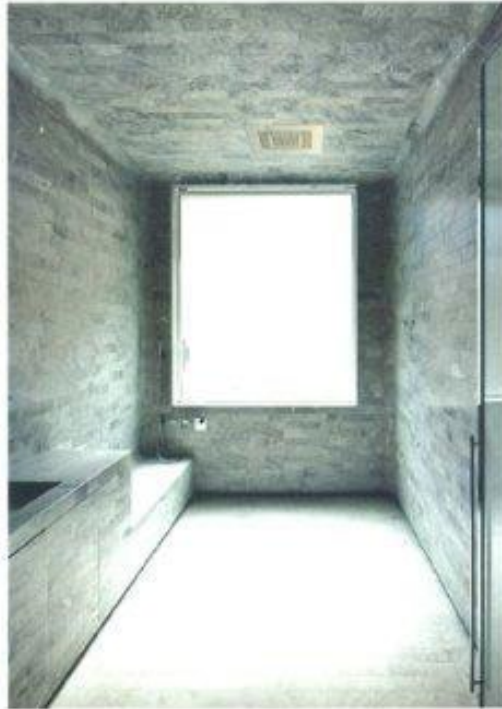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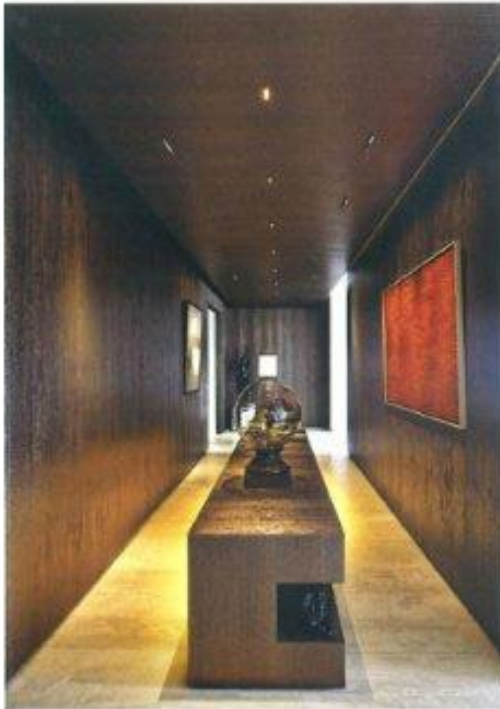
출처: DQ1
 위치: Paris, France / Aomori, Tokyo, Japan
 면적: 820m²
 주최: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IBS, Tokyo
 콘셉트: Exhibition concept design
 사진: Tokujin SHIMIZ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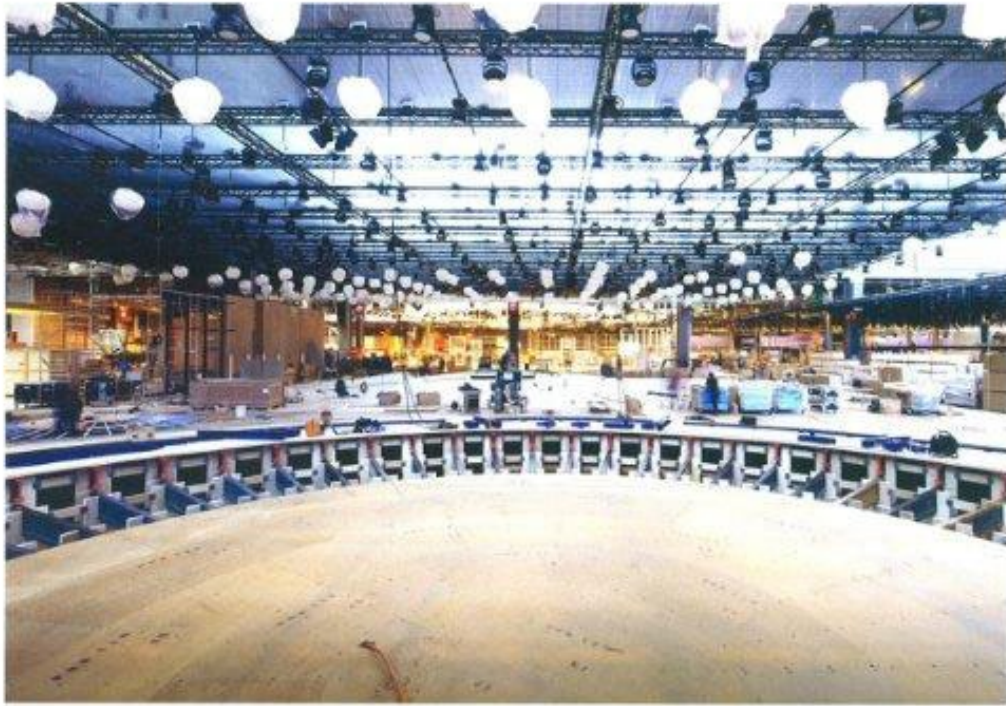


Living in Collection APARTMENT IN MASPERO

설계 - Architectes: DGT, Paris
 기술 - Belinger + Grossmann GmbH, Frankfurt
 위치 - 28 rue de Poitou 75003 Paris, France
 면적 - 100m²
 클라이언트 - Jimmy Farah
 예술 - Serge Crif, Corbis
 사진 - Takui Shimura

이 전방적인 파리 스타일의 아파트는 DGT가 추구하는 호기심과 대담함이 클라이언트의 바램과 잘 맞아 떨어져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이다. 디자이너들은 일상에서 예술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은 물론 직물이 더 잘 주목받는 공간으로 디자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디자이너는 비내리 벽체를 모두 없애는 등 기존의 구조를 다들 바꾸었다. 해서 공간은 무비, 가질, 오피스, 침실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재편되었다. 코너는 자연광이 없는데다가 다소 어두운 불성으로 이곳에서 그 곳에 전시 되어 초명을 받는 작품이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3개의 거대한 창이 있는 거실은 목재에 빛이 가득한 밝은 공간이다. 그 공간의 특성을 갖는 오피스는 컨셉같이 작품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사고와 영감이 자유롭게 발현되는 곳으로 의도되었다. 침실의 욕실은 아파트 구조를 파내서 만든 니치 같은 공간인데, 마치 고문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안락함을 가지고 있다.





The Bump RENAULT SALON DE L'AUTOMOBILE 2012-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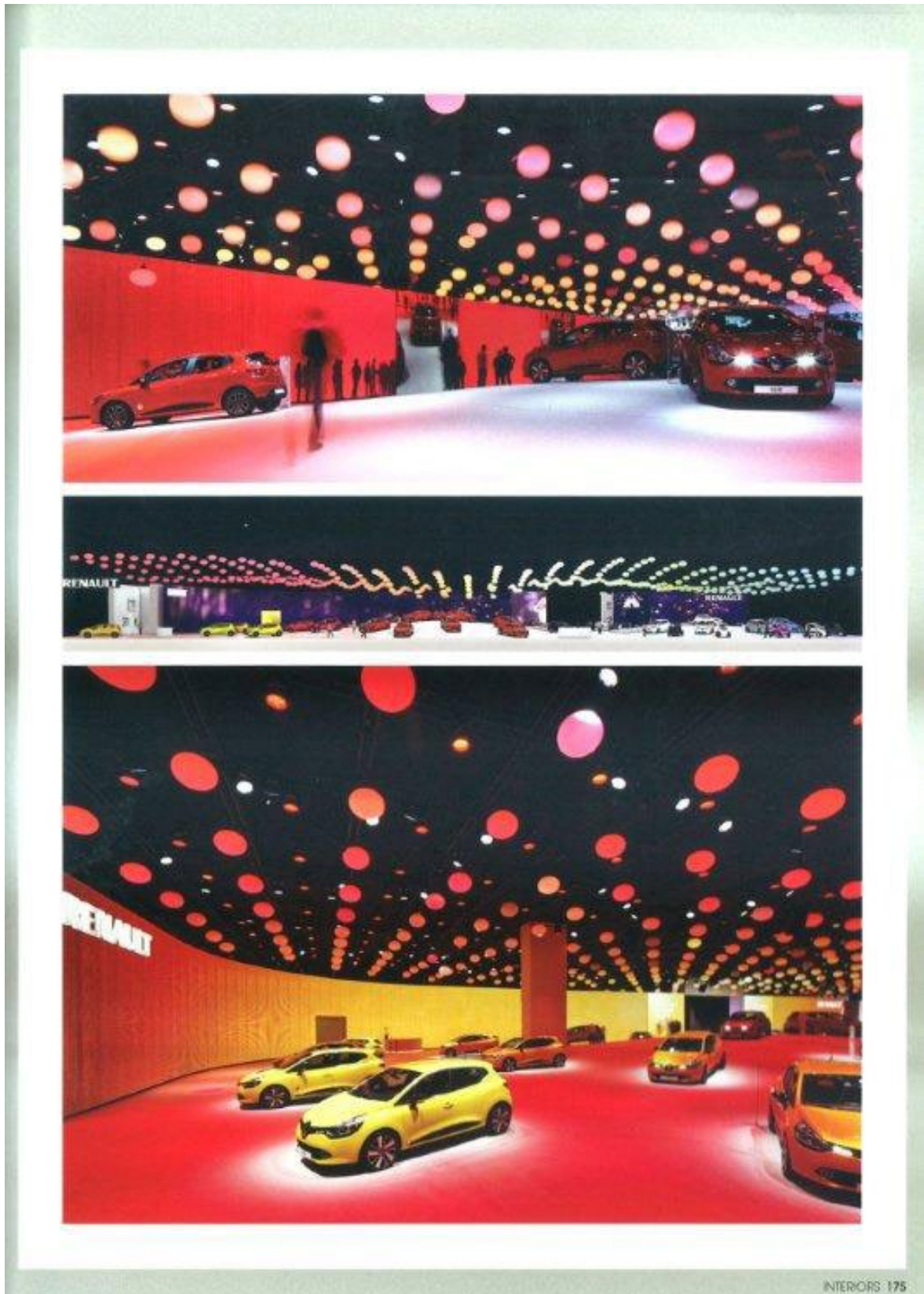
르노자동차는 2012 파리오토쇼에서 새로운 혁명적인 전시대 'The Bump'를 발표했다.

DGT Architects 다양한 건축적 배경과 새로운 건축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르노가 개최한 2010년 공모전에서 수상하였다. 그들은 선도적인 프랑스 자동차회사의 DNA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그들에게 세계적인 건축성을 다수 수상하게 한 고고학적인 접근 방식을 이용하였다. 자동차의 역사, 브랜드의 유산, 시각적 아이덴티티, 사용자의 관심은 DGT가 'The Bump'를 디자인하면서 고려대상으로 삼았던 특징들이다.

장기적인 전시대는 '변화를 추진하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자, 자동차를 변화시키자'는 2000년 르노의 철학을 구체화하였다. 이 전시대는 2015년 까지 제네바, 프랑크푸르트, 밀라노, 상하이, 베르살로니,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전 세계 20개 이상의 도시를 순회하도록 계획되었다. 독특한 콘셉트는 이전 것보다 곡선미가 있고 여성적이다.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따뜻하고 반기는 분위기의 전열대는 선도하는 자동차회사로서의 그 위치를 강조하고, 그 어떤 리미프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그 자동차들과 그것들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DGT는 컨셉과 스테이션 물건, 소모품과, 전기자동차 등의 일반적인 가치, 즉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문체는 움직임의 느낌을 어떻게 전시대로 해석해줄지 하나 하는 것이었다. 지중지를 희고로 잘 보여주는 데 정애가 되는 전시대의 평평한 표면에 직면한 그들은 그들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을 바

설계 - DGT
 예술 감독 - DGT
 프로그램 컨셉 - Astier Hervé Audibert
 그래픽 컨셉 - Dream On
 음향 컨셉 - Sixsenseor
 카우 - DGT + Astier Mats
 위치 - Paris, France(20 cities)
 면적 - 4,312m²
 클라이언트 - Renault SA / Renault, Direction Marketing & Communication Monde - salons internationaux
 운영/프로젝트 매니저 - Astier Mats
 기술감독 - Francis Leclerc (S ONECS)
 시공 - Cimmar
 조명/채광 - NAT (S Lighties)
 시공인사 - 35
 연방설계사 - Fanny Moreau et Frederic DRYA
 사진 - Takay Shimamura





차이로 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2개의 연막이다. 콘셉트가 또는 새로운 차림은 돌아가는 플랫폼 위에서 발발 하고 있다. 측면에서는 통상적인 자동차 레이아웃이 보는 이가 서 있는 곳에 따라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방문객은 중앙 통로의 양쪽에서 르노의 새로운 모델을 감상할 수 있다. 바닥과 천장의 조명은 3D 레이아웃이 연출하는 움직임의 느낌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천구들은 그 역상을 이모히게 변형시키면서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끝 끝무늬의 움직임과 자극하고 있으며,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는 바람직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커다란 LED 스크린에서 드러난다.

이 전시대는 빛놀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르노의 아이덴티티를 위한 신경을 수 역할을 하고 각 방문객으로 하여금 독특하고 7천에 남을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프로젝트의 주된 도전은 공간에 인생의 각 단계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개인에게 빛을 통해 추진력을 갖게 하고 자동차회사의 제품에서 스마니오는 편리한 안전성, 심미성, 혁신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파리의 오른에는 새로운 르노 Clio를 위한 'passion red'와 Zoee를 위한 'electric blue' 등 두 모델을 위해 2개의 연막이 마련되었다. 르노의 세계에 중추를 빠진 방문객은 전시세계를 위한 DGT와 새로운 비전이 실제 가져다준 새롭고 접근할 수 있고 감각적인 각도를 경험할 수 있다.

'The Bump'는 2015년까지 3년 동안 20개 이상의 도시를 방문하는 여정을 떠난다. 지속가능하고 임가적인 전시대는 물러갔다, 내려졌다, 이동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이 접근방법이 3년 이상 변하지 않는 한 'The Bump'는 크기나 부서에 상관없이 그 지역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기도 하였다. 조명, 비디오실지, 음식 또한 방문객을 위한 무대를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시대의 적응력에 필수적이다.

